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의 변화 분석: 고양시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박소현*·이금숙**

Analysis on The Regional Industrial Growth and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First Newtown Project in Seoul Metropolitan Area

So Hyun Park* · Keumsook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차별화된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효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한 베드타운에서 점차 지식서비스 활동의 싹을 집적지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 중 고양시는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두 지역 모두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다. 저성장 시대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세부업종별 집중 육성에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고양시, 성남시, 지역성장, 지역산업, 지역고용, 지식서비스산업, 입지계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owth of major industries and effects of regional employment on the economic growth of Goyang city and Seongnam city in Gyeonggi Province. We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factors of the growth in two regions by applying Location Quotients and dynamic shift-share analysis respectively. Both regions have been strengthened gradually in their industrial bases during the last 20 years since they have developed as the bed-towns for Seoul with the First Newtown Project of the Metropolitan Seoul area. These two regions have secured i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compare to other regions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In particular,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agglomerated in both regions. Goyang city have secured in the medical welfare, culture and tourism of service sectors, while Seongnam city have secured in the information service and science technology service sectors. Therefore, each region might be differentiated regional foster industries in these sectors in order to succeed the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 Goyang, Seongnam, regional growth, regional industry, regional employment, knowledge service industry, location quotient, dynamic shift-share analysis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후연구원(PostDoc,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hyunpk5@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http://dx.doi.org/10.23841/egsk.2017.20.1.34>

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산업·직업구조와 지역구조에 큰 변화를 경험해 왔다. 산업전반의 고도화 속에 미래 산업으로 6T(IT, NT, BT, ET, ST, CT: 정보기술, 나노,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문화)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거론되어 왔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가중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 가공, 활용해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채지민·이원호, 2014), 광역·기초지자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지식기반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역맞춤형 지식기반산업을 모색하는 등 지역적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입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첨단지식산업의 입지는 고급전문인력과 자본시장의 확보를 필요로 하며 집적구조의 형태로 분포하는 특성을 갖는다(Legendijk, 1997; Porter, 1998; Maskell and Malmberg, 1999; Malmberg and Maskell, 2002; Lee *et al.*, 2012). 또한 산업집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존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배후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여 집중 육성하는 형태를 띠며 발생하게 된다¹⁾. 박소현·이금숙(2016) 연

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입지 분포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경제활동의 주요 연령층인 20~30대 청년층의 취업분포가 높은 전문직 업종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업종의 입지 분포는 기존의 강남지역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대를 비롯해 최근 신흥지역으로 경기북부의 고양시와 경기남부의 성남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두 지역의 공통점이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인 일산과 분당이 포함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거주밀집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정부는 서울의 인구과밀에 따른 주택난과 부동산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 20km 이내에 위치한 외곽지역 중 비교적 지가가 낮은 고양시(일산)와 성남시(분당), 그리고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의 3개 지구를 포함시켜 198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로 변화한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 구도시지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 연구(임동일, 2008; 김경아·허재완, 2016)와 주민 입주가 시작된 1995~6년 이후 이들 지역의 산업고용(신인식, 2001; 김광익, 2006), 상권분석(이창무 외, 2006), 통근통행(전명진, 2000; 이수기 외, 2001; 안국현·이명훈, 2006)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지역의 자족정도에 대해 평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경기도의 경우 일찍이 도 차원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박재홍, 2004). 이 중 고양시와 성남시는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던 침상도시(Bed Town)에서 점차 지역적 차원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등 경제적 자족성을 갖추며 지식서비스산업의 신흥 집적지로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지역 중 고양시와 성남시를 사례로 이들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친 산업, 특히 지식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업종별 고용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지역경제에 있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업종별 입지여부는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기회의 지역적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고학력-고숙련의 고급전문인력이 밀집된 지식서비스업 집적지역은 저성장 기조에도 성장세를 나타내며 지역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점차 차별·특화된 산업구조, 특히 지식서비스업의 신흥 집적지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고양시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성장과 변화를 개관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고용의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특히 신도시 건설 이후 입주가 시작되는 1995~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20여 년간 두 지역의 인구 및 산업·직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2006~2014년간 고양시, 성남시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산업 및 비교우위산업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 지역의 차별·특화된 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고용기반 자족정도(Clapp, 1971; Golany, 1976)를 중심으로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할 분석법으로 산업의 상대적 특화정도를 통해 기반과 비기반 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LQ)를 산출하고, 지역산업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연도별로 파악하여 종합하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한다. 두 분석법 모두 각 지역산업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

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변이·할당분석은 신도시를 비롯해 각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선정한 주력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내·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선정된 것인지 검토하는 데 유용한 지역분석법으로 경제지리 연구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변필성 외, 2005; 김학훈, 2011; 최병두 외, 2014).

분석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다양한 고용지표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이용한다.

2. 고양시, 성남시 지역경제의 성장과 변화

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

지난 20년(1996-2016)동안 고양시와 성남시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음 표1과 같다. 신도시 건설 직후인 1996년 총 인구를 살펴보면 고양시 약 65만7천명, 성남시 약 91만4천명으로 성남시가 25만 명가량 많았다. 그러나 이후 고양시는 연평균 2.34%씩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104만 명으로 2014년부터 인구백만도시로 진입하였고, 이는 20년 전과 대비할 경우 무려 58.19%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성남시 인구는 연평균 0.33%의 소폭 증가세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정체에 가까운 인구분포 상태를 나타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두 지역 모두 유소년인구(0-14세)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연평균 0.94%씩 감소할 때 성남시는 무려 연간 2.7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65세 이상 노년층은 두 지역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기준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고양시, 성남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 명, %)

		1996	2006	2016	연평균 증가율	1996-2016 증가율	
고양시	계	657,226 (100.00)	910,206 (100.00)	1,039,684 (100.00)	2.34	58.19	
	성별	남	329,049 (50.07)	450,541 (49.50)	510,923 (49.14)	2.24	55.27
		여	328,177 (49.93)	459,665 (50.50)	528,761 (50.86)	2.43	61.12
	연령별	14세 이하	175,878 (26.76)	195,354 (21.46)	144,217 (13.87)	-0.94	-18.00
		15-64세	448,840 (68.29)	644,888 (70.85)	781,375 (75.16)	2.83	74.09
		65세 이상	32,508 (4.95)	69,964 (7.69)	114,092 (10.97)	6.50	250.97
성남시	계	914,240 (100.00)	964,831 (100.00)	974,580 (100.00)	0.33	6.60	
	성별	남	460,018 (50.32)	483,364 (50.10)	483,374 (49.60)	0.25	5.08
		여	454,222 (49.68)	481,467 (49.90)	491,206 (50.40)	0.40	8.14
	연령별	14세 이하	222,341 (24.32)	174,665 (18.10)	127,311 (13.06)	-2.74	-42.74
		15-64세	653,329 (71.46)	723,040 (74.94)	737,525 (75.68)	0.61	12.89
		65세 이상	38,570 (4.22)	67,126 (6.96)	109,744 (11.26)	5.37	184.53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2. 고양시, 성남시 학력별 인구구조 현황(2015)

(단위: 명,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졸	계
고양시	91,623 (13.60)	225,003 (33.41)	319,288 (47.41)	37,613 (5.58)	673,527 (100.00)
성남시	108,072 (16.50)	193,450 (29.53)	298,693 (45.60)	54,866 (8.38)	655,081 (100.00)
경기도	1,503,453 (18.03)	3,116,050 (37.37)	3,340,886 (40.07)	377,028 (4.52)	8,337,417 (100.00)

주) 6세 이상 인구 중 재학, 중퇴는 제외한 졸업자만 집계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기지역 내에서도 두 지역에 분포하는 거주인구 중 대졸 이상 고학력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학력구성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분포는 두 지역 모두 거주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양시 52.99%, 성남시 53.98%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미취학과 초졸, 중졸 이하의 학력, 고졸 학력의 분포는 경기지역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분포에서도 고양시는 대졸(4년제 미만, 4년제 이상)자의 분포가 성남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남시는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졸업자의 분포가 고양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직업구조 및 고용 변화

다음으로 고양시와 성남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고양시에 입지하는 사업체는 연평균 4.64%씩 증가하여

2014년 기준 59,300개로 집계되었고, 종사자는 연평균 5.13%씩 증가하여 277,722명(14)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 입지하는 사업체도 연평균 3.30%씩 증가하여 60,841개(14)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는 연평균 5.96%씩 증가하여 2014년 기준 401,483명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과 대비할 경우 고양시의 사업체수는 1.88배 증가하여 성남시(1.57배)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의 증가폭은 지난 15년간 고양시(2.01배)보다 성남시(2.24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성남시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형태 사업체의 입지분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업체 당 종사자수를 산출해보면 2014년 기준 사업체 당 고양시 468명, 성남시 660명꼴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에서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성장률 폭이 급감한 양상을 나타냈다.

표 3. 고양시, 성남시 산업 및 고용 분포 추이

(단위: 개, 명, %, 배)

		2000(A)	2008	2014(B)	연평균 증가율	2000-2007 증가율	2008-2014 증가율	B/A
고양시	사업체	31,520	46,391	59,300	4.64	41.44	27.83	1.88
	종사자	138,351	222,374	277,722	5.13	54.02	24.89	2.01
성남시	사업체	38,749	49,941	60,841	3.30	27.35	21.83	1.57
	종사자	179,490	284,700	401,483	5.96	54.06	41.02	2.2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4. 고양시, 성남시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명, %)

		2000	2003	2006	2009	2012	2014
고양시	농림어업	0.11	0.04	0.03	0.05	0.03	0.03
	제조업	16.08	14.74	12.93	10.68	10.24	10.15
	서비스업	83.81	85.22	87.05	89.27	89.74	89.83
성남시	농림어업	0.03	0.02	0.04	0.03	0.00	0.02
	제조업	19.68	17.38	14.71	12.11	11.85	10.21
	서비스업	80.30	82.60	85.26	87.86	88.15	89.7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두 지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냈다(표 4). 전산업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규모는 2014년 기준 고양시 249,468명, 성남시 360,433명으로 두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광업포함)은 두 지역 모두 양적증감을 반복하며 소폭의 양적증가를 나타냈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양시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는 2000년 22,243명(16.08%)에서 2007년 25,753명(12.09%), 2014년 기준 28,179명(10.15%)으로 집계되었고, 성남시는 2000년 35,315명(19.68%)에서 양적증감을 반복, 2014년 기준 40,989명(10.21%)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지역 경제성장의 증가세를 이

끈 산업구조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두 지역 모두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업종별 분포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실생활과 관련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비자 및 유통 서비스업에서 지역고용의 31.38%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사회간접자본 부문(11.91%)과 제조업(10.15%), 교육 서비스업(10.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85%)에서 고용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서도 실생활과 관련되는 도매 및 소매업(14.64%)에서 가장 높은 고용분포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45%)과 제조업(10.21%), 숙박 및 음식점업(9.84%), 전

표 5. 고양시, 성남시 산업별 고용분포 현황(2014)

(단위: 명, %)

	고양시		성남시		경기도	
	명	%	명	%	명	%
농림어업	75	0.03	61	0.02	3,776	0.08
제조업(광업)	28,179	10.15	40,989	10.21	1,210,218	27.06
서비스업	249,468	89.83	360,433	89.78	3,257,779	72.85
사회간접자본(SOC)	33,082	11.91	39,933	9.95	449,945	10.06
도매 및 소매업	55,149	19.86	58,773	14.64	634,391	14.19
숙박 및 음식점업	32,005	11.52	39,491	9.84	429,841	9.6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35	1.85	45,974	11.45	89,082	1.99
금융 및 보험업	8,302	2.99	10,969	2.73	102,025	2.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817	3.89	15,771	3.93	116,036	2.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08	2.92	38,702	9.64	219,500	4.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227	4.40	19,418	4.84	177,765	3.9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563	2.00	7,382	1.84	103,080	2.31
교육 서비스업	27,910	10.05	31,852	7.93	345,814	7.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342	9.85	27,523	6.86	298,742	6.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234	2.60	7,021	1.75	91,158	2.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594	5.98	17,624	4.39	200,400	4.48
계	277,722	100.00	401,483	100.00	4,471,773	100.00

주) SOC부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6. 고양시, 성남시 직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고양시			성남시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관리자, 전문가	27.70	27.79	23.27	29.65	31.73	35.27
사무	16.17	14.90	16.48	19.24	17.26	19.52
서비스, 판매	23.55	26.56	25.83	22.77	22.76	19.87
농림어업 숙련	3.72	2.23	1.68	0.57	0.49	0.04
기능·기계조작·조립	20.25	17.44	19.67	18.06	16.78	14.78
단순노무	8.61	11.07	13.06	9.70	10.99	10.5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기타, 미상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 2010), 지역별고용조사(2016.1/2), 근무지기준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64%)에서 고용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거주 및 상업기능과 밀접한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의 소비자 및 유통 서비스업과 지식 서비스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분포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에서도 고양시는 교육, 의료, 관광레저 등의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등의 부문에서 고용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구조(표 6)도 고양시와 성남시 모두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직을 중심으로 고용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는 서비스·판매직에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고, 성남시는 관리·전문직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3. 고양시, 성남시 지역산업의 특화도 및 고용창출효과 분석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의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역산업의 특화도 및 상대적 우위산업을 분석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경

쟁력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2006~2014년 간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한다²⁾.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한 지역의 특정산업이 갖는 상대적 특화도, 지리적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산출된 입지계수 값은 1을 기준으로 하여 $LQ_{ij} > 1$ 이면 i 지역 j 산업이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LQ_{ij} < 1$ 이면 i 지역 j 산업이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분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³⁾.

$$LQ_{ij} = (E_{ij}/E_i) / (E_j/E)$$

본 분석에서 전체는 수도권으로 E_{ij} 는 i 지역 j 산업의 고용규모, E_i 는 i 지역 전산업 고용규모, E_j 는 수도권 j 산업의 고용규모, E 는 수도권의 전산업을 의미한다.

다음 표7은 입지계수 산출 결과로, 고양시부터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도가 높은 산업(LQ > 1)은 총 18개 업종 중 2006년 9개, 2010년 8개에서 2014년 10개 업종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LQ > 1.25의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7개('06)→7개('10)→8개('1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종별 입지계

수 값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3개년 모두 $LQ > 1.25$ 의 높은 특화도를 나타낸 업종을 살펴보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71→1.55→1.53), 부동산업 및 임대업(1.68→1.61→1.35), 교육 서비스업(1.55→1.52→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4→1.59→1.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9→1.36→1.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34→1.40→1.33)으로 산출되었다. 그 밖에 운수업의 경우 지난 8년간 고용규모(12,045명→13,403명→17,164명)는 증가하였으나 집중도(1.07→0.98→1.13)는 일시적으로 감소 후 재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고용규모가 증가(4,242명→4,818명→5,135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특화도(0.55→0.51→0.44)는 하락한 것으로 산

출되었다.

성남시는 수도권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도가 높은 산업으로 2006년과 2010년은 총 18개 업종 중 9개, 2014년 8개('14) 업종이 $LQ > 1$ 로 산출되었고, 이 가운데 $LQ > 1.25$ 의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5개('06)→3개('10)→4개('14)로 고양시보다 특화산업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개년 모두 $LQ > 1.25$ 의 높은 특화도를 나타낸 업종을 살펴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75→1.86→2.73)에서 매우 높은 집중도 값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91→2.06→2.01), 부동산업 및 임대업(1.72→1.54→1.36) 등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8,372명→23,121명→45,974명)은 입지계수 값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고용의 양적 증가세를 나

표 7. 고양시, 성남시 산업별 입지계수(LQ) 결과 추이

	고양시			성남시		
	2006	2010	2014	2006	2010	2014
농림어업	0.51	0.48	0.66	0.73	0.06	0.37
제조업(광업)	0.63	0.62	0.60	0.72	0.68	0.6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99	0.98	1.53	1.91	2.06	2.0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1	1.55	1.53	0.57	0.73	0.82
건설업	0.87	0.80	0.98	1.37	1.00	1.13
도매 및 소매업	1.12	1.16	1.24	0.94	0.95	0.91
운수업	1.07	0.98	1.13	0.78	0.83	0.67
숙박 및 음식점업	1.26	1.26	1.18	1.09	1.07	1.0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5	0.51	0.44	1.75	1.86	2.73
금융 및 보험업	0.85	0.81	0.79	0.70	0.67	0.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8	1.61	1.35	1.72	1.54	1.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67	0.52	0.44	1.05	1.23	1.4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3	0.52	0.75	0.61	0.78	0.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8	0.91	0.77	0.72	1.01	0.71
교육 서비스업	1.55	1.52	1.39	1.27	1.22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4	1.59	1.50	1.24	1.15	1.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	1.36	1.42	0.95	0.98	0.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4	1.40	1.33	1.07	1.04	0.98

타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지리적 집중도(1.05→1.23→1.46)와 고용규모(11,344명→23,111명→38,702명)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8년간 성남시는 이들 산업관련 서비스 활동의 집적지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설업(1.37→1.00→1.13)의 집중도는 일시적으로 감소 후 재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은 일정기간 지역산업의 성장과 변화가 전국 또는 다른 지역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역경제 분석법으로(Creamer, 1943; Brown, 1969), 지역산업의 성장 정도에 대해 전국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NGE),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IME),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RSE)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세 가지 효과의 합으로 지역의 총 성장(또는 쇠퇴), 즉 총변화효과(total change effect, TCE)를 파악하고, 지역산업의 순성장을 나타내는 순(상대변화)효과(net relative change effect)는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와의 합으로 파악한다.

본 분석의 공간범위는 수도권이므로 수도권성장효과(NGE)는 일정기간 수도권 전체산업의 성장으로 유발된 i 지역 j 산업의 성장(고용) 증가분을 의미한다. i 지역 j 산업이 수도권의 성장(고용)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효과이다. 산업구조효과(IME)는 수도권 j 산업의 성장률에서 전체산업의 성장률을 뺀 수도권 j 산업의 순성장률이 i 지역 j 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고용 증가분을 나타낸다. 수도권 전체산업의 성장률과 대비함으로써 i 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값의 여부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역할당효과(RSE)는 i 지역 j 산업의 성장률에서 수도권 j 산업의 성장률을 뺀 i 지역 j 산업의 순성장률이 유발한 고용증가분으로 수도권 여타지역 j 산업 대비 i 지역 j 산업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낸다. 지역의 특수성, 즉 지역별 입지특성, 인구유입 및 기타요소 등 다른 지역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TCE_{ij} &= NGE_{ij} + IME_{ij} + RSE_{ij} \\ NGE_{ij} &= E_{ij}(o) \cdot [E(t)/E(o) - 1] \\ IME_{ij} &= E_{ij}(o) \cdot [E_j(t)/E_j(o) - E(t)/E(o)] \\ RSE_{ij} &= E_{ij}(o) \cdot [E_{ij}(t)/E_{ij}(o) - E_j(t)/E_j(o)] \end{aligned}$$

따라서 본 분석에서 $E(t)$, $E(o)$ 는 비교년도(t)와 기준년도(o)의 수도권 전산업 총 고용규모, $E_{ij}(t)$, $E_{ij}(o)$ 는 비교년도(t), 기준년도(o)의 i 지역 j 산업의 총 고용규모, $E_j(t)$, $E_j(o)$ 는 비교년도(t), 기준년도(o)의 수도권 j 산업의 총 고용규모를 의미한다. 특히 분석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만의 정태적 비교가 아닌 연속적으로 연도별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여 분석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동태적(dynamic) 변화를 고려하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수도권 전체성장에 영향을 받는 지역산업의 성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 결과에 따르면(표 8), 고양시는 2006~2014년간 산업구조효과에서 27,455명의 고용증가분을 나타냈고, 지역할당에서 2,526명의 감소효과를 보임으로써 두 효과를 합한 24,929명의 증가효과를 보였고, 여기에 수도권 전체성장에서 유발된 63,135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88,064명의 총성장효과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지역의 성장이 고양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고양시 자체 산업구조도 성장하였지만,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고양시 입지가 갖는 상대적 산업 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성장요인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성장에 따른 고양시 성장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양(+)의 증가분을 나타냈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이 11,524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분을 가져왔고, 그 뒤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의 증가분 순으로 고용확대를 가져왔다. 산업구조 효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935명으로 가장 큰 고용증가효과를 나타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도 고용효과의 증가분을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수도권 전체에서 이들 산업이 나타낸 순성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지역할당효과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며 가장 큰 고용효과를 보였고, 그 뒤로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농림업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산업구조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지역할당효과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여타지역에 분포하는 이들 산업의 입지적 여건 및 환경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 내부성장요인인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양(+)의 순상대효과를 갖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961명), 도매 및 소매업(8,372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694명), 건설업(2,065명), 운수업(1,798

표 8. 고양시, 성남시 산업별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2006-2014)

(단위: 명)

	고양시				성남시			
	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총성장효과	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총성장효과
농림업	17	-20	26	23	13	-24	-98	-109
제조업(광업)	6,906	-1,330	-2,049	3,527	10,104	-2,138	-5,250	2,7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9	-145	-54	-20	499	-413	-585	-49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97	161	-58	401	200	117	312	629
건설업	3,142	1,186	880	5,207	4,983	2,038	-2,819	4,202
도매 및 소매업	11,524	5,044	3,328	19,896	12,511	5,500	297	18,308
운수업	3,830	1,124	674	5,628	3,764	1,269	-1,803	3,231
숙박 및 음식점업	7,497	1,240	-714	8,022	8,538	1,450	1,264	11,2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19	1,518	-1,710	1,127	6,760	8,157	13,283	28,200
금융 및 보험업	2,251	-489	-341	1,420	2,432	-540	1,324	3,2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53	-1,399	-1,676	-22	4,003	-1,870	-1,487	6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15	5,240	-4,107	3,048	6,141	14,598	7,173	27,9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63	4,272	3,422	9,457	3,276	8,341	923	12,5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99	-293	200	1,407	1,967	-542	689	2,114
교육 서비스업	7,098	688	-1,633	6,153	7,503	690	-637	7,5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14	9,935	27	15,275	5,166	9,805	-1,698	13,2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28	269	758	2,655	1,533	203	673	2,4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03	455	503	4,861	3,873	420	536	4,829
합계	63,135	27,455	-2,526	88,064	83,268	47,061	12,097	142,426

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33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27명) 등의 순으로 고용증가분을 나타냈다. 한편, 지리적 집중도만 놓고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매우 높은 산업 특화도(LQ)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값의 수준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의 전문화(IME)와 입지적 특성에 의한 경쟁력(RSE)도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남시를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지역 산업구조에서 47,061명의 고용증가효과를 나타냈고, 지역할당효과에서 12,097명의 고용증가분을 보임으로써 두 효과를 합해 59,158명의 순성장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체성장에서 유발된 83,268명의 증가분효과도 봄으로써 총 142,426명의 총성장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각 성장요인별 긍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산업을 살펴보면, 수도권전역의 성장효과는 성남시 전체 산업의 고용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산업구조효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고용증가분을 가져왔다. 아울러 양(+)의 지역할당효과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입지적 환경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낸 업종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지역고용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구조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할당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내 입지적 특성에 의한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집중도만 놓고 보면 수도권 전체평균보다 높은 특화도(LQ)를 나타냈으나 그 값의 수준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의 전

문화(IME)와 입지적 특성에 의한 경쟁력(RSE)도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성남시 내부성장요인인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순상대변화효과가 양(+)의 값을 갖는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1,771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1,44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264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08명), 도매 및 소매업(5,796명), 숙박 및 음식점업(2,715명) 등의 순으로 고용증가분을 나타냈다.

4. 고양시, 성남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비교 및 고용기회 전망

이상으로 입지계수와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산업의 성장과 집적에 의한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두 지역 모두 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에서 높은 고용창출과 입지경쟁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종합 요약해보면,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리적 집중도가 높고(LQ>1),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내부성장요인에 있어 모두 양(+)의 증가분으로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업종과 그 외 여가, 관광레저 관련 시설의 입지 조성 및 개발수요 증가로 이들 산업관련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에도 고양시 지역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학 및 바이오기술 등과 융합하거나 관광과 연계할 경우 더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북서부에 위치한 고양시는 경의선, 지하철 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⁴⁾,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의선의 경우 북한과 단절된 구간이 연결되면 신의주까지 연계되어 향후 통일이 될 경우 운수교통량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외 현재 GTX, 신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센터 등을 갖춘 국제전시장(KINTEX) 등 기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인구백만도시인 고양시는 거주민의 취미, 여가활동과 관련되는 공간으로 이미 호수공원, 승마장, 복합쇼핑몰 등 문화-관광 및 레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축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도하는 한류 테마파크 조성 등 이들 산업이 유발하는 고용창출효과와 집적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구조효과가 양(+)이고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것(LQ>1)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할당효과에서 음(-)을 나타낸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회서비스업은 고양시 및 경기도 차원의 공공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재생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입지경쟁력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남시는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상대적 특화도가 높고(LQ>1),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서 양(+)의 증가분으로 집적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산업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역차원에서 주력산업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IT관련 정보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남 테헤란로를 연결하는 벤처벨트를 구축하고, 더불어 근접한 2기 신도시인 판교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입주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지식산업의 특성 상 고급전문인력과 자본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집중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지식집약비즈니스(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전체평균 대비 높은 지리적 집중도(LQ>1)를 보이고 있고, 산업구조효과도 양(+)의 값을 갖지만 지역할당효과에서 음(-)을 나타낸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역차원에서 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등 상대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두 지역은 모두 지난 8년간 양(+)의 순성장효과를 나타냈지만, 지리적 집중도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비기반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업종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함께 사업서비스업(KIBS)의 범위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거주 및 상업지역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종의 특성 상 향후 두 지역에서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내며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관측된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은 두 지역 모두 지리적 집중도는 수도권 전체평균 대비 높은 것(LQ>1)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의 수준은 하락세를 보여 왔고 지역내부성장요인에서 산업구조효과는 양(+)이지만 지역할당효과는 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초저출산 지역(1.16명, '15)에 유소년 인구도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향후 교육 서비스업에서 창출될 고용창출효과는 다소 부진한 양상

표 9. 고양시, 성남시 특화산업 및 비교우위산업 종합 결과

지역	구분	LQ≥1.25	1<LQ<1.25
고양시	산업구조(+) 지역할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산업구조(+) 지역할당(-)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성남시	산업구조(+) 지역할당(+)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구조(+) 지역할당(-)	-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 입지계수 값은 2014년 기준임

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으로 요약하면, 고양시는 운수 및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의 SOC부문, 그리고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성남시도 건설업과 정보서비스 및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산업의 전문화와 성장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거주생활과 관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산업특화와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인구고령화로 두 지역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세로 교육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이 갖는 태생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자체 차원의 산업 고도화로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고양시와 성남시를 사례로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동태적으로 파

악하였다. 신도시 개발 이후 주민 입주가 시작된 1995~6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년 동안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점차 차별·특화된 산업구조를 갖으며 경제적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이들 두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직업구조의 변화를 살펴 보았고, 2006~2014년간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여 특화된 산업과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산업의 성장과 집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주민 입주가 시작된 1995~6년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의 총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고양시는 매우 높은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며 인구백만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와 성남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에서 압도적 강세를 나타냈고, 경기여타지역 대비 거주지와 근무지 기준 모두에서 고급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대졸 이상 고학력 거주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직업구조는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에서 높은 고용창출과 입지경쟁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운수업과 환경재생의 SOC부문 외에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서비스업에서, 성남시는 건설업 외에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서비스업에서 산업의 특화도가 높고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실생활과 관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높은 집적과 고용창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양시와 성남시는 두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를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는 지식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세부업종별 성장전략을 세워 육성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Marshall, Isard, Krugman, Porter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 경제지리 학자들을 통해 연구 및 논의되어 왔다.
- 2) 산업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산업분류의 연결성을 위해 같은 분류체계를 갖는 2006년부터 최근시점까지 비교분석한다.
- 3) 입지계수는 비교적 산출이 용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집적의 척도이지만 일부지역에서 다른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특정산업이 조금만 집중하여도 해당산업이 특화된 산업으로 파악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를 해야 한다 (박소현·이금숙, 2016).
- 4) 고양시는 서울과의 거리가 강북 약 20km, 강남 약 28km, 성남시는 서울 강북 약 23km, 강남 약 15km 내외의 거리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다.

참고문헌

- 김경아·허재완, 2016,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시가지 변화에 관한 연구-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집, pp.503-517.
- 김광익, 2006, “서울 교외도시들의 서비스업 고용입지 패턴변화: 성남과 안양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0(4), pp.529-538.
- 김학훈, 2011, “청주의 고용 성장과 산업 변화, 1985-2005: 변이할당모형에 의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pp.325-341.
- 박소현·이금숙, 2016, “서울대도시권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 업종별 고용기회 예측,”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694-711.
- 박재홍, 2004,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분화 및 입지 전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pp.23-44.
- 변필성·김광익·김태환, 2005, “지역 경쟁력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변이할당분석기법의 고용성장예에의 적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pp. 267-284.
- 신인식, 2001, “신도시 형성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산신도시 형성전후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19, pp.137-156.
- 안국현·이명훈, 2006, “수도권 도시의 자족도에 관한 연구-수도권 신도시 소재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pp.233-253.
- 이수기·주미진·하재현, 2015, “수도권 1기 신도시 통근통행특성과 공간구조의 변화(1996~2010): 자족성과 중심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0(5), pp. 5-23.
- 이창무·여홍구·나강열, 2006, “분당 신도시의 성장과 상권의 변화과정,” 국토계획 41(6), pp.65-78.
- 임동일, 2008,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의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 8(10), pp.317-327.
- 전명진, 2000,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통근통행 특성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pp.157-170.
- 채지민·이원호, 2014, “수도권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패턴과 사회통합적 영향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60-674.
- 최병두·엄진찬·채은혜, 2014,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

- 업과 산업연계: 네트워크도시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718-742.
- Brown, H. J., 1969, “Shift and share projection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9(1), pp.1-18.
- Clapp, J. A., 1971. *New Towns and Urban Policy: Planning Metropolitan Growth*, Dunellen: New York.
- Creamer, D., 1943, “Shift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Industrial Location and National Resourc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85-104.
- Golany, G., 1976,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gendijk, A., 1997,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How and from whom should industrial geography learn?,” *EUNIT Discussion Paper 10*, Newcastle: CURDS.
- Lee, K., Song, Y., Park, J. S., Anderson, W. P., 2012, “Relationship between Diurnal Patterns of Transit Ridership and Land Use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1), pp.26-41.
- Marshall, A., 1927,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Malmberg, A. and Maskell, P., 2002, “The elusive concept of localization economies: towards a knowledge-based theory of spatial cluster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34(3), pp.429-449.
- Maskell, P. and Malmberg, A., 1999, “Localized learn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3, pp.167-185.
-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 pp.77-90.
- Song, Y., Lee, K., Anderson, W. P., and Lakshmanan, T. R., 2012,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transport accessibility in metropolitan Seoul,”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14(3), pp.299-318.
- 교신: 이금숙,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전화: 02-920-7138, 이메일: kslee@sungshin.ac.kr
- Correspondence: Keumsook Le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 Tel: 82-2-920-7138, E-mail: kslee@sungshin.ac.kr

최초투고일 2017년 2월 2일
수정일 2017년 3월 3일
최종접수일 2017년 3월 9일